

창립 45돌 ... 2천여 회원 규합 학술활동

대한마취과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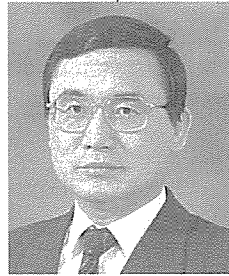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이조 말엽까지 마취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고 단순한 약제와 침구술로 통증치료를 하였다는 구전만 전해 올 뿐 수술을 위한 마취법은 아니었다.

그 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서양 의학(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의학)과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학이 들어오면서 마취과학도 국소마취법, 척추마취법 및 ether점적법이 주종을 이루어 동란 전까지 극히 불안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마취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학에 있어서 마취과학이 차지했던 비중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취과는 하나의 과(科)로 독립되지 못하였고 외과의사가 직접 마취하였으며 마취교육은 외과학 총론 중 1~2시간의 마취학과 강의가 포함되는 정도였으므로 대한마취과학회의 창립은 다른 학회가 해방과 더불어 발족한 데 비해 더 늦은 1956년에야 이루어졌다.

매년 봄·가을 학술대회

1950년 한국동란으로 인한 전상환자의 처치를 계기로 구미의 영향을 받아 낙후되었던 한국 의학계는 급변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마취과학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 마취과학 현대화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 시기가 한국의 현대 마취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연합군의 의료진이 상륙하고 부산에 덴마크 병원선이 기항함에 따라 최신 의학의 물결이 파급되었으며 마취과학분야에도 현대적인 약제, 기계



張 聖 鎬
(대한마취과학회 이사장)

및 기술이 도입되었다. 덴마크 병원선에서 마취를 담당하였던 Dr. Ole Secher는 1958년 국립의료원 초대 마취과장으로 와서 서울시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 및 자문이 이루어져 오늘날 월례 집담회의 시작이 되었다.

특히 동란 중 마취의 중요성을 절감한 당시 육군 의무감 윤치왕중장은 유엔군의 마취군의관에게 한국군 군의관의 마취과학 교육을 의뢰하여 단기간 미국에 가서 연수케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취 전문 교육의 발단이 되었으며 이 교육을 이수한 자는 마취에 종사함으로써 마취전담 군의관 즉 마취과 의사가 처음 탄생하였다.

한편 군에서 마취 교육을 받고 마취과분야에서 종사하였던 군의관들과 마취에 관심이 있는 의학계 중진들이 모여서 마취과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통감하여 1956년 9월 15일 대한마취과학회 창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어 1956년 11월 10일 오후 2시 뜻있는 선구자 30여분이 모여서 대한마취과학회를 창립하고 민광식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978년부터는 이사장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1월 현재 45대 회장(chairman)과 12대 이사장(president)이 이어지고 있다. 1957년 6월 9일 서울의대에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봄·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52차 춘계학술대회와 45차 추계학술대회에 이르고 있다.

동란이 끝나고 해외유학으로부터 진보된 마취기

1956년 11월 30여명의 전문인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마취과학회는 매년 봄·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52차 춘계학술대회와 45차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63년 제정된 새국민의료법에 따라 첫 마취과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해마다 회원이 늘어 이 학회의 현재 정회원 수는 2천3백62명이며 11명의 이사진과 8개 분과학회 그리고 6개 지부를 두는 등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술을 습득하고 귀국하여, 마취를 전담하는 의사와 회원들이 증가되기 시작한 후 소수의 의과대학 병원에서 마취과가 독립되고 마취과학 강좌가 시작되었다.

학회가 발족되면서 마취과학의 성장이 급진전되었고, 한국동란이 끝나고 외국 특히 미국에서 마취 전공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등 학회 회원 수가 증가하였고, 1957년 대한의학협회의 분과학회로 인정되었으며, 1958년 마취과학의 성장이 급진전되어 세계마취과학회(WFSA)의 회원국가로 가입되었으며, 1960년대 초반에 새로운 마취기와 약제가 도입되어 현대적인 마취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3년부터 전문의 배출

학회창립 후에도 전문의제도의 부재와 장래성의 불투명성 그리고 무자격 마취주수 양성 등의 문제



1997년 10월 31일 서울 롯데월드호텔에서 제15회 한일 심포지엄 당시 만찬모습<16회는 일본의 삿포로에서 1999년 5월 28일에 있었고 2001년 11월 2일에는 제17회 한일 심포지엄이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 마취과 의사의 배출에 장애가 많아 전문의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절실하였다.

1963년 정회섭 보사부장관과 손금성 대한의학협회이사장, 두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 의료법 및 동 시행세칙(법률 제221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 과목 표방허가 자격시험과목에 마취과가 포함되어 첫 전문의가 배출되고 학술활동과 진료가 한층 활발해졌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마취과를 지원하는 수련의가 극히 적어서 1970년대까지 매년 10명 정도였다. 그러나 창립 당시 9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1974년에 이르러 총 전문의 수가 1백9명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전문의 배출이 매년 수십명이 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1백명 이상으로 증가되어 현재는 정회원 수가 2천3백62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1968년에는 대한마취과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되었는데 1994년부터는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987년 대한 마취과 학술상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사회단체, 의료업체, 또는 본 학회에 애정을 가진 개인에게도 학술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회원들의 학술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고, 전공의 교육수련 활성화에 노력하여 1989년 알찬 수련교육을 위하여 전공의를 평가하기 위한 전공의 자율평가제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고, 고시 업무의 전산화와 홈페이지의 개설은 학회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1979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마취과학 학술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합동학술대회를 갖기로 하고 제1회 한일마취과학 합동 심포지엄을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989년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열기로 하여 2001년 가을에 제 17회 한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90년에는 서울에서 제 8차 아세아-오세아니아 마취과학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회 일정을 미국마취과학회의 5-year calendars for meeting에 게재하여 세계적 홍보는 물론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고, 세계마취과학회(WFSA)에 마취과 정회원 수를 2천10명으로 현실화해서 등록하여 총회에 대한마취과학회의 대표자 수를 5명으로 증가 배정받아 한국의 발언권은 물론 학회 위상을 높게 되었다.

8개 분과학회와 6개 지부 운영

현재 대한마취과학회는 평의원회와 기획, 학술 등 11명의 이사진과, 기획, 학술, 수련교육, 고시, 간행, 보험, 정보, 홍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서울, 충청,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6개 지부와 8~9개의 분과학회를 둔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과학회로는 1980년 12월 마취과학회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대한구급의료학회를 발족하고 서태평양지구 구급의료학회와 세계 구급의료학회에 가입하였고, 대한통증연구학회(1983년)와 대한통증학회(1985년)가 마취과 의사 중심으로 창립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학문적 발전의 요구에 따라 연구회가 속속 구성되었는데 대한뇌신경마취연구회(1995년), 간이식마취연구회(1995년), 대한신경근연구회(1995년), 대한정맥마취연구회(1996년), 대한소아마취학회(1996년), 대한심폐혈관마취연구회(1997년), 대한산과마취학회(1997년)가 발족되고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통증」, 「정맥마취」, 「소아마취」, 「대한산과마취학회지」란 학술지를 창간하여 각 전문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대 의학은 1백년 전만 하더라도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50년 동

안 급속한 발전을 하였으며 마취과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개심술 및 장기이식 등 고도로 발달된 외과계 수술이 가능한 것은 마취과학의 급진적인 성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마취과학은 수술실에서 외과적 수술을 위한 마취 외에도 중환자실, 호흡관리, 통증치료실 및 구급의학(응급의학) 등 의학계의 핵심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중요하고 특수한 학과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마취과는 마취관리 뿐 아니라 수술전후의 통증관리와 더불어 만성 및 암성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마취과'란 명칭은 급변한 우리의 업무영역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용어라서 마취과학회는 회원들의 표방과목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의 학문분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당한 명칭인 '마취통증의학과'로 마취과 전문과목/표방과목 명칭을 개칭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제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의약분업시대 이후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되었지만 학회는 개칭을 위하여 노력하여 마취 이외에 통증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위상을 확대하여 마취통증의학과로의 개칭과 개업에 따른 교육 및 협조에도 학회 차원의 의료정책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대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수가 의료보험정책 및 상대가치점수제, 의료분업 및 DRG실시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보험수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학술활동에 있어서도 현재 한 일관적 위주에서 동남아를 포함하고 나아가서 구미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학회로 발돋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학회지의 수준을 외국의 저명 학술지 수준으로 올려 교수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마취과 의사들을 위한 방대한 우리 말판 교과서 발행과, 마취과의 업무범위나 인식을 새롭게 하기위한 홍보 그리고 마취과 의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⑤7